

WEBVTT

00:00:33.871 --> 00:00:35.217

안녕하세요?

00:00:35.242 --> 00:00:38.242

지식 캠퍼스를 통해서
색과 화장에 대한

00:00:38.267 --> 00:00:42.132

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
저는 김민신입니다.

00:00:42.695 --> 00:00:46.800

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
처음 뵈게 되었는데요.

00:00:46.825 --> 00:00:48.401

반갑습니다.

00:00:48.671 --> 00:00:52.776

저는 대학에서 향장학을
가르치고 있습니다.

00:00:54.100 --> 00:01:00.221

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 교수인
알버트 메라비언은 대화하는 사람들을

00:01:00.267 --> 00:01:05.241

잘 관찰한 결과
사람의 인상이나 호감에 영향을 주는

00:01:05.266 --> 00:01:08.195

결정적인 요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.

00:01:08.220 --> 00:01:11.164

그러니까 용모, 복장, 제스처,

00:01:11.189 --> 00:01:15.275

보디랭귀지와 같은
이 비주얼적인 부분이 55%,

00:01:15.397 --> 00:01:21.100

목소리 톤과 음색이 38%
그리고 말의 의미는 7%에

00:01:21.105 --> 00:01:22.738

해당하는 걸 발견하고

00:01:22.763 --> 00:01:28.641

55:38:7이라는 이러한
메라비언 법칙을 발표합니다.

00:01:30.770 --> 00:01:33.699

시각적인 요소, 청각적인 요소가

00:01:33.724 --> 00:01:37.292

메시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
분석한 건데요.

00:01:37.317 --> 00:01:43.350

메시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말보다는
비언어적인 요소인 외모나 태도,

00:01:43.375 --> 00:01:46.375

매너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

00:01:46.400 --> 00:01:50.686

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보다 태도나
매너를 믿는다는 게

00:01:50.711 --> 00:01:53.537

이 메라비언의 연구 결과입니다.

00:01:54.805 --> 00:01:59.494

그리고 현재의 이 법칙은
광고나 마케팅, 프레젠테이션,

00:01:59.519 --> 00:02:03.166

협상이나 설득 분야에서
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

00:02:03.191 --> 00:02:05.100

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.

00:02:05.376 --> 00:02:08.850

그러면 여기에서 비주얼적인
부분에 대해서

00:02:08.875 --> 00:02:11.154

좀 더 깊게 알아보까요?

00:02:13.284 --> 00:02:16.076

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

00:02:16.101 --> 00:02:19.896

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
첫인상을 받게 됩니다.

00:02:20.275 --> 00:02:25.052

그렇다면 첫인상을 파악하는 데
얼마나 걸릴까요?

00:02:25.400 --> 00:02:30.755

여러분,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
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?

00:02:31.410 --> 00:02:34.935

혹시 첫눈에 반한 적이 있었다면

00:02:34.960 --> 00:02:38.822

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
기억이 나시나요?

00:02:39.183 --> 00:02:44.717

아마도 불과 0.1초의
찰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.

00:02:45.531 --> 00:02:50.362

일반적으로 첫인상을 파악하는 데
걸리는 시간은 7~8초 정도

00:02:50.387 --> 00:02:55.035

또 길게는 30초 정도밖에
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

00:02:55.475 --> 00:02:59.986

그런데 그 인상을 좌우하는
요인의 80% 이상이

00:03:00.011 --> 00:03:04.234

바로 이 컬러가 주는 영향이라는
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

00:03:04.371 --> 00:03:09.269

그러니까 입은 의상의 색이라든지
헤어 컬러의 색 또 메이크업 같은

00:03:09.294 --> 00:03:14.798

그 사람의 인상과 연관된 색,
컬러가 중요하다는 거죠.

00:03:15.853 --> 00:03:19.954

우리는 얼마나 많은 색상들을
볼 수 있을까요?

00:03:20.527 --> 00:03:24.779

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은
수없이 많습니다.

00:03:25.000 --> 00:03:29.962

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
주변에 있는 색상들의 수가

00:03:29.987 --> 00:03:34.017

한 800만 가지에서
1000만 가지에 이른다고 해요.

00:03:34.349 --> 00:03:37.864

물론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죠.

00:03:38.626 --> 00:03:44.175

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는
색이 한 1000단위라고 한다면

00:03:44.200 --> 00:03:49.443

디자이너나 화가 같은 이런 전문가가
구별할 수 있는 색은 10배나 많은

00:03:49.468 --> 00:03:51.276

한 10000단위라고 합니다.

00:03:51.674 --> 00:03:56.354

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
목격할 수 있는 색들

00:03:56.379 --> 00:03:58.659

한번 찾아볼까요?

00:04:00.539 --> 00:04:04.030

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
굉장히 다양하지만

00:04:04.055 --> 00:04:10.250
결국 의상의 아이템들을 분류해 보면
재킷, 바지, 원피스, 코트

00:04:10.275 --> 00:04:12.517
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.

00:04:12.831 --> 00:04:16.575
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옷이
다양하게 보이고

00:04:16.600 --> 00:04:19.992
또 전혀 다른 옷처럼 보이는
이유 중에 하나가

00:04:20.017 --> 00:04:22.048
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

00:04:22.073 --> 00:04:25.485
이렇게 다양한 컬러로
나오기 때문이죠.

00:04:26.012 --> 00:04:28.513
그래서 요즘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

00:04:28.538 --> 00:04:31.538
컬러를 입는다고 해도
과언이 아닙니다.

00:04:31.791 --> 00:04:34.080
이런 현상은 옷뿐만이 아니죠.

00:04:34.105 --> 00:04:38.067
형형색색 색만 봐도
먹음직스러운 음식.

00:04:38.092 --> 00:04:41.407
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도
색이 있습니다.

00:04:42.316 --> 00:04:43.770
의식주.

00:04:43.956 --> 00:04:48.888
모두 자기들만의 고유한 색상
또 개성 있는 색이 있는 거죠.

00:04:49.229 --> 00:04:54.962
결국 우리는 컬러를 입고 먹고
컬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

00:04:56.059 --> 00:05:00.450
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
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

00:05:00.475 --> 00:05:05.475
늘 함께하고 있는 이 컬러에 대해서
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
00:05:06.067 --> 00:05:07.932

빨주노초파남보.

00:05:08.116 --> 00:05:11.428

인간은 이런 색을
어떻게 보는 걸까요?

00:05:12.100 --> 00:05:18.010

지금 이 공간에 빛이 없이 캄캄하다면
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.

00:05:18.540 --> 00:05:23.342

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을
어떻게 볼 수 있게 될까요?

00:05:24.975 --> 00:05:27.975

여기 사과 1개가 있습니다.

00:05:28.275 --> 00:05:31.901

저와 여러분은 이 사과를
같이 보고 있죠.

00:05:31.926 --> 00:05:33.957

이 사과가 어떤 모습이죠?

00:05:34.875 --> 00:05:38.703

빨간색이구나, 사과구나.
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.

00:05:38.981 --> 00:05:41.086

빨간색의 사과다.

00:05:41.111 --> 00:05:44.719

이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
한번 살펴보면

00:05:44.744 --> 00:05:49.250

먼저 사과가 있어야 하고
또 주변에 빛이 있어야 하고

00:05:49.275 --> 00:05:53.801

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
눈이 있어야 이것을 보게 됩니다.

00:05:54.162 --> 00:05:55.761

여기를 좀 봐주세요.

00:05:55.938 --> 00:05:57.772

사과가 놓여 있습니다.

00:05:57.969 --> 00:06:03.065

인간이 사과를 보는 순간
사과 모양과 색깔에 대한 정보가

00:06:03.090 --> 00:06:06.522

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.

00:06:06.547 --> 00:06:11.796

이때 사과구나, 빨간색이구나
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.

00:06:12.792 --> 00:06:17.591

이처럼 우리가 색을 느끼려면
먼저 빛이 있어야 하는데요.

00:06:17.616 --> 00:06:19.745
이것을 광원이라고 합니다.

00:06:19.770 --> 00:06:24.696
그리고 물체가 있어야 하고
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죠.

00:06:25.775 --> 00:06:29.012
이렇게 색을 인지하기 위해서는
3가지 요소.

00:06:29.134 --> 00:06:32.509
광원, 물체, 눈이 필요합니다.

00:06:32.534 --> 00:06:36.825
이제부터는 이 빛에 대해서
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

00:06:38.853 --> 00:06:41.853
빛은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.

00:06:42.153 --> 00:06:47.216
이 빛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
뉴턴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요.

00:06:47.469 --> 00:06:49.112
1666년경에 뉴턴은
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

00:06:52.558 --> 00:06:58.039
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광선이
펼쳐지는 것을 실험합니다.

00:06:58.267 --> 00:07:00.442
그리고 이 분광 실험을 통해서

00:07:00.467 --> 00:07:04.856
빛의 파장은 굴절하는 각도가
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.

00:07:05.200 --> 00:07:11.965
굴절률이 작은 빨강부터 주황, 노랑,
초록, 파랑, 남색, 보라 순서로

00:07:11.990 --> 00:07:15.930
이렇게 분광되는 것을
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.

00:07:16.705 --> 00:07:20.872
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분산되는 띠를
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.

00:07:21.216 --> 00:07:25.755
그리고 우리가 색채를 보면서
느낄 수 있는 이러한 물리적 자극은

00:07:25.780 --> 00:07:28.645
바로 가시광선의 빛입니다.

00:07:29.433 --> 00:07:31.731
이 가시광선의 파장의 영역

00:07:31.756 --> 00:07:35.657
380에서 780나노미터인데요.

00:07:35.682 --> 00:07:40.540
이 영역에서 빨강과 주황은
590에서 780나노미터의

00:07:40.565 --> 00:07:42.415
장파장 영역이고요.

00:07:42.440 --> 00:07:46.815
노랑과 초록은 500에서
590나노미터의 중파장

00:07:46.840 --> 00:07:51.176
그리고 파랑과 보라는 380에서
500나노미터의

00:07:51.201 --> 00:07:54.201
단파장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00:07:55.452 --> 00:08:00.075
그 이외에 가시광선보다 짧은 빛을
자외선이라고 하고요.

00:08:00.100 --> 00:08:03.100
긴 빛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.

00:08:03.438 --> 00:08:07.739
그렇다면 우리는 왜 빨주노초파남보

00:08:07.764 --> 00:08:11.293
이러한 가시광선 영역 때만
볼 수 있는 걸까요?

00:08:12.468 --> 00:08:15.275
그 이유는 우리 눈의 시각 색소가

00:08:15.300 --> 00:08:19.597
가시광선 이외의 파장을
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

00:08:19.936 --> 00:08:24.150
그리고 가시광선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
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

00:08:24.175 --> 00:08:26.999
여러 가지 색채로 볼 수 있는 거죠.

00:08:28.145 --> 00:08:33.561
여러분, 컬러 테라피, 컬러 마케팅
들어보셨나요?

00:08:34.207 --> 00:08:38.536
이 컬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
치료와 광고 분야 등에서

00:08:38.561 --> 00:08:41.343
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.

00:08:41.969 --> 00:08:46.051
이처럼 컬러는 우리가
의식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

00:08:46.076 --> 00:08:50.776
무의식 상태에서도 아주 우리
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생리적인 면에

00:08:50.801 --> 00:08:52.574
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
00:08:52.599 --> 00:08:56.949
이러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
상품 전략이라든지

00:08:56.974 --> 00:09:00.289
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들
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00:09:01.326 --> 00:09:05.015
여러분, 빨간색 하면
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

00:09:06.343 --> 00:09:10.272
레드는 색채 심리학이나
컬러 마케팅에서

00:09:10.297 --> 00:09:12.868
판매 색이라고 불릴 정도로

00:09:12.893 --> 00:09:18.775
레드 컬러를 넣으면 매출이 굉장히
많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

00:09:19.489 --> 00:09:23.176
그리고 옐로는 커뮤니케이션
컬러라고도 불리는데요.

00:09:23.201 --> 00:09:27.375
사람과의 거리감을 좁혀서
대인 관계를 또 원활하게 해 주는

00:09:27.400 --> 00:09:29.216
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.

00:09:29.299 --> 00:09:34.190
그러니까 이러한 컬러의 특성들을
알면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

00:09:34.215 --> 00:09:37.125
또 비즈니스에도 활용을 하게 되겠죠.

00:09:38.460 --> 00:09:41.460
인간이 아무리 많은 색을 본다고 해도

00:09:41.485 --> 00:09:45.504
그건 전부 가시광선 안에 있는
색들입니다.

00:09:46.154 --> 00:09:50.608

음악에 도레미파솔라시도
이렇게 음계가 있는 것처럼

00:09:50.633 --> 00:09:54.475

색상에도 빨주노초파남보
이러한 색상이 있어서

00:09:54.500 --> 00:09:56.207

색을 나타내게 됩니다.

00:09:56.432 --> 00:10:00.484

그리고 각각의 색은
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.

00:10:01.793 --> 00:10:04.375

색채는 저마다 독특한
분위기가 있고요.

00:10:04.400 --> 00:10:07.733

또 인간의 심리 구조와
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

00:10:07.758 --> 00:10:10.758

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.

00:10:11.233 --> 00:10:16.275

물론 색채와 개인이 갖는 감정은
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

00:10:16.300 --> 00:10:19.300

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.

00:10:19.385 --> 00:10:25.150

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
컬러에도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.

00:10:25.175 --> 00:10:28.505

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
있습니다.

00:10:29.071 --> 00:10:32.829

우리가 핑크색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
색을 보게 되면

00:10:32.854 --> 00:10:36.032

굉장히 포근하고 달콤하게 느껴지죠.

00:10:36.253 --> 00:10:41.383

그리고 레몬색을 떠올리면
상큼하고 서서 눈을 감게 되고요.

00:10:41.619 --> 00:10:46.598

이렇게 색이 우리의 오감을 만나서
표현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.

00:10:46.950 --> 00:10:51.170

색을 보면 색과 관련된
사물, 분위기, 이미지를

00:10:51.195 --> 00:10:52.731

떠올리게 되는 건데요.

00:10:52.756 --> 00:10:55.756

우리 감정까지 연결되는 거죠.

00:10:56.284 --> 00:11:01.436

그렇다면 색은 우리에게
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
00:11:01.701 --> 00:11:06.709

색채만 보고도 우리가 그게
무엇인지를 맞힐 수가 있을까요?

00:11:08.175 --> 00:11:13.056

우유 패키지만 보고 딸기맛 우유,
바나나맛 우유, 초콜릿 우유를

00:11:13.081 --> 00:11:15.225

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요.

00:11:15.250 --> 00:11:20.219

컬러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고
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

00:11:20.244 --> 00:11:22.412

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00:11:24.405 --> 00:11:28.034

같은 노란색이더라도 중국에서는
황제의 색으로

00:11:28.059 --> 00:11:30.281

아주 신성한 컬러로 여기지만

00:11:30.306 --> 00:11:35.190

또 그리스에서는 슬픔을 상징하고
프랑스에서는 질투를 상징하는

00:11:35.215 --> 00:11:37.077

그런 컬러가 됩니다.

00:11:37.967 --> 00:11:43.835

흰색이 동양권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
상주가 입는 상복으로 대표가 되지만

00:11:43.860 --> 00:11:47.468

서양에서는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죠.

00:11:48.547 --> 00:11:51.824

그 나라이기 때문에,
그 민족이기 때문에

00:11:51.849 --> 00:11:54.849

상징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데요.

00:11:54.874 --> 00:11:59.035

그래서 컬러는 사회 문화 정보로서의
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

00:11:59.920 --> 00:12:05.695

하지만 컬러는 대체로 그 나라의
전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

00:12:05.720 --> 00:12:09.308

보편적으로 통하는
색의 상징성이 있습니다.

00:12:09.333 --> 00:12:15.226

그러니까 언어는 아니지만 컬러가
언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

00:12:15.762 --> 00:12:19.562

이것을 국제적인 안전색채라고 해서

00:12:19.587 --> 00:12:23.528

그러니까 빨강은 위험, 화학류를
표시하는 색상이고요.

00:12:23.553 --> 00:12:26.253

또 주황은 구명보트의 색상으로

00:12:26.278 --> 00:12:30.644

또 녹색은 비상구라든지 피난소를
표시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

00:12:30.669 --> 00:12:36.468

이렇게 국제적인 의사 전달
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.

00:12:38.028 --> 00:12:44.201

오늘은 색의 전반적인 정보와
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.

00:12:44.226 --> 00:12:45.823

어떠셨나요?

00:12:45.848 --> 00:12:51.553

옷부터 물건에 사용된 색들
정말 평범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시죠?

00:12:52.100 --> 00:12:56.006

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하는
이 시간을 통해서

00:12:56.031 --> 00:12:59.675

색이 보내는 다양한 메시지를
해독할 수 있다면

00:12:59.700 --> 00:13:02.803

우리는 색을 풍부하게
사용할 수 있고요.

00:13:02.828 --> 00:13:07.451

또 색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
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.

00:13:08.124 --> 00:13:11.124

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?

00:13:12.178 --> 00:13:16.875

앞으로 하나씩, 하나씩 살펴보면서

알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

00:13:17.175 --> 00:13:22.885
이 책의 역사와 함께 인문학적인
내용도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하고요.

00:13:22.910 --> 00:13:25.179
또 색의 연상과 상징

00:13:25.204 --> 00:13:28.204
또 색이 우리 마음에
어떻게 다가오는지

00:13:28.229 --> 00:13:33.148
그 감정들에 대해서도
수다 떨 내용들 정말 많답니다.

00:13:33.670 --> 00:13:39.003
색채로 알아보는 즐거운 화장 인문학
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.

00:13:39.028 --> 00:13:40.337
감사합니다.